
* 시론 *

마지막 달에 붙여

이 세상이여, 인생이여, 세월이여!

그 마지막 층계에 올라서서 전에 섰던 데 바라보며 떨고 있노라.

네 청춘의 영광 언제 다시 오려나? 결단코 —아, 다시는 결코 오지 않으리!

(O World ! O Life ! O Time !

On whose last steps I climb,

Trembling at that where I had stood before,

When will return the glory of your prime ?

No more —ch, never more !)

이것이 영국의 시인 셉티가 그 유명한 "탄식"이라는 시에서 부르짖은 소리가 아닌가?

1980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층계에 올라서서 지난 열한 달 우리가 섰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따지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지난 세월을 보람있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은 회한을 느끼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내뱉은 듯한 시라고 느껴진다.

돌이켜 보면 지난 열한 달은 본자 그대로 다시 파란으로 정결된 세월이었다. 거창하게 이란, 이라크의 분쟁 등 국제 문제를 거론치 않더라도, 국내적으로도 국민투표 등 숭한 시련과 도전의 극복을 기록한 한 해였으며, 현회 자체도 거둬들인 감사와 기구 개편 등으로 최대의 변혁을 경험한 해였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우리들에게 맡기진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자성해 보아야 하겠다.

군인들이 우리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철저한 외부 기관 감시를 연달아 수감했으며 이를 통박여 평소 애용한 시 하린 몇가지 분야에서 작으나마 구멍이

동력 있었음을 밝힌하였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빈틈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모두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아울러 이왕 노출된 실수들을 앞으로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날 그날 성실하게 완수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업무 처리상의 왕도란 있을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때는 끊임없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창출 시대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거니와 이 말의 원어(히랍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는 뜻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선용함으로써 세월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제 이 가지과 달도 불과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의 최후 기회를 선용하여 캐사에 끝카무터를 완전히 해야겠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법이니." (셰익스피어)

All is well that ends well.